



배포 2024. 5. 28.(화)

2023~2024학년도 초·중·고 한국어 수업 종료

- 전년 대비 36%이상 증가한 25개교 6,905명 한국어 수업 수강
- 다낭시, 꼰터시 등 한국과 교류가 많은 지역의 한국어 교육 신규 확대 예정

- 베트남에서 한국어가 제2, 1외국어(2020, 2021)로 채택된 이후 베트남 중남부 지역에서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는 학교와 학생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.
- 대한민국 교육부 부설 호치민시한국교육원(원장 길호진)은 2023~2024학년도 초·중·고 한국어 수업에 전년 대비 36% 늘어난 25개교 6,905명이 수강하였다고 밝혔다.

구분	'20~'21 (호치민)	'21~'22 (호치민)	'22~'23 (호치민)	'23~'24 (호치민, 달랏)
학교 수	8	10	16	25
학생 수	1,462	1,763	4,410	6,905

- 각 학교에는 교육원이 양성·관리하는 총 38명의 베트남인 한국어 교원이 배치되었으며, 호치민시 화르중학교의 한국어 제2외국어 채택, 달랏시 지역 최초 한국어 수업 진행(2개 중학교) 등의 성과도 거두었다.
- 2023~2024학년도 종료를 맞아 교육원은 교육원 강당에서 5.31.(금) 한국어 교원 워크숍을 개최한다.
- 호치민시, 다낭시, 달랏시에서 참석한 교원들은 지난 수업 경험에 대한 공유와 발전방안 모색, 그리고 2024~2025학년도 계획 등을 논의하고,
- 특히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김치, 김밥 만들기 등 한국문화 체험과 한국어 수업 연계 사례 발표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동기 유발 방안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.

- 한편 교육원은 양질의 한국어 교원을 학교에 배치하기 위해 베트남 교육훈련부의 유일한 정식 교원양성과정을 운영해왔으며, 한국의 국제한국어교육재단과 함께 연2회의 합숙 집중 연수도 제공하였다.
 - 또한, 한국어 수업에 대한 실질적 정책 권한과 우수한 교수자원을 가진 교육행정기관, 교육기관과의 유대·협력을 강화하는데도 힘써왔다.
 - 다낭교육청 및 달랏교육청과 관내 학교에서의 한국어 수업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('23.10.)하였고,
 - 달랏대('23.11.), 다낭외국어대('23.11.), 두이편대('24.1.), 동아대('24.1.) 등과도 한국어 교수 및 강사 지원에 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.
- 길호진 호치민시한국교육원장은 “작년 8월 베트남 교육훈련부로부터 활동지역을 기존 호치민시에서 다낭이하 중남부지역으로 확대 허가 받은 것을 계기로, 한국과 교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”고 밝히며
 - “앞으로도 양국의 공동 성장과 발전을 위한 언어·문화적 토대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하였다.

기관	호치민시한국교육원	책임자	원 장	길 호 진 (84.28)3920-1274
		담당자	행정실장	김 수 연 (84.28)3920-1274



○ 다낭교육청 MOU("23.10.09.)



○ 동아대 MOU("24.1.24.)



○ 호치민 텔레만고 김밥 만들기('24.5.13.)



○ 달랏 응웬유 중('23~'24. 신규학교)

